

며 各部分의 彫飾이 簡素하고 樣式이 形式化된 點에서 비록 時代의 降下를 免키 어러우나 上下蓮瓣의 豊肥한 品이라든가 雅淡한 全體均衡 및 眼象의 整美한 手法으로 보아 羅末麗初의 優作으로 推定되었다.

이 浮屠를 俗稱 眞鑑禪師大空塔이라고 하는바 그 然由로는 다만 本寺 法堂 前庭中央에 眞鑑禪師大空塔碑가 建立되어 現存하기 때문에 兩遺物을 關聯시키는 까닭이라 하겠다. 이 碑에 對하여는 「大東金石書」에 雙谿碑。(在晋州智異山)雙谿寺眞鑑國師碑。翰林學士崔致遠撰並書額。唐 僖宗光啓三年丁未立。新羅眞聖女王元年

라 있어, 이 碑는 新羅第五十一代 眞聖女王元年(西紀八八七年)에 建立된 것임을 알 수 있다. 碑文은 眞鑑禪師慧昭의 事蹟을 崔致遠이 王命에 依하여 撰書한 것이다.

群山 中央路 石造如來立像

申 榮 勳



群山市 中央路二街八〇의 一號 金容護氏宅 畔자울타리 外에 不規則하게 놓여진 石造物들이 흙

塔身을 꼭 맞추어 놓지 못한 三層石塔 一基와 後補物인 臺座위에 設는 石造如來立像 一軀가 比較的原形을 갖고 있을

뿐이다.

이들과는 조금 떨어진 장소에 水磨한 長方形 台石과, 凹形 溝가 있는 基座가 半埋沒되어 있다.

正面直立의 石佛의 높이는 二・〇七m(臺座除外) 肉髻가 높는데 素髮을 하였고 耳輪과 三道는 비교적 뚜렷하다. 白毫는 없고 眉下眼、鼻、口唇은 무엇에 依하여 몹시 破損을 입었다. 全體의 얼굴 모습은 圓滿 重厚한데 입가에 얽은 미소를 띠었다. 法衣는 通肩를 하였는데 前面의 衣紋은 統一期 金銅立佛에서 보이는 것과 같은 波狀形이 重疊하는 形式이다. 裙의 下端은 下向線條로 描出하였다. 印相은 右手는 直下하고 左手는 손을 조금 안쪽으로 구부린채 自然스럽게 손을 펴서 內掌하고 左手는 손바닥을 上向하여 가슴앞에 구부러 들고 寶珠를 올려 놓았다. 背面은 전혀 손을 댈 자국이 없다.

埋沒石物中 前述한 凹形溝가 있는 基座가 있어 溝의 長邊 七八cm와 石佛下端前面과는 一・五cm의 差가 있고 基座의 溝 前面에 細長한 발가락 이 다섯개씩 사이를 두고 浮刻되어 있어 元 基座였었던 것으로 推定된다. 一・五cm의 차이는 지금 基座의 溝가 佛像下端의 크기보다 四方一cm씩 큰걸로 이루어 지나치게 들어가 끼여져 있기 때문에 생긴 것인 듯하다. 臺座는 隅入된 부분이 있는 方形인데 石佛下端처럼 거칠게 손질 되어 있다. 목이 받고 法衣上端 右側의 衣紋이 자연스럽지 못하게 접힌 점과 顔面이 高麗佛처럼 통통하게 생긴점 衣紋이 유려하게 흐르지 못한 점 등으로 미루어 대체로 高麗初에서 中期에 이르는 作品이라고 보겠다. 특히 佛體에 둥근맛이 없고 모를 남겨 놨다는 것들이 退化한 高麗手法을 暗示하여 주는 듯하다.

이 石物들은 日人들이 庭園을 꾸미려고 옮겨다 놓았던 것들이라고 하는데 六・二五前까지는 數가 더 많았었다고 한다. 傳하는 말로는 井邑의 어느 寺址에서 옮겨 왔다고 하지만 原位置의 究明은 어렵겠다. 群山에는 日人들이 옮겨온 石物이 相當數 殘存하고 있다는데 全面的인 調査가 있어야 하겠다.